

십이월  
스리랑카  
짜리 모음  
보고서

# 불리 말리?

하나. 십이월 달력과 랑카 시간표

두. 십이월 이야기

셋. 모임으로의 초대

넷. 친철항 지도

다섯. 인물관구

여섯. 작은 대답

일곱. 참 좋은 경험

여덟. 스리랑카 북부지역을 가다

아홉. 친쟁이 끝난 뒤에

열. 감사의 말

십일. 마무리

십이. 없음

# 12월의 스리랑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루완(성수)생일	3	4
			물주기		Y's Men 바자회 콜롬보 루완 병원 밀로이씨네 방문	휴식
			루완 할아버지 생일 준비 캐롤 연습	루완 생일을 축하! 케익, 고두, 밀리터 리바지 등 루완 3주 더 선고 받음		
5	6	7	8 와루니아까 결혼식	9	10 Carnival	11 Carnival/100일!
			*비오는 날은 쓰레기 줍고 피케팅만 해요~			아침에 말린드라씨네 방문 - 만요카 요리를 배움!! Youth Club의 카니발 아밀러의 100일 축하 문구가 아이싱 되어있는 깜짝 케익
디고롤라가든 커미티미팅	허벌드링크 준비	루나와 병원 -허벌드링크 Youth Club	와루니아까 결혼식 Youth Club의 카니발 홍보 (탈리니 강가) - 트럭 뒤에 유스멤버들이랑 타서 작은 전단지들 뿌리며 10일, 11일 YMCA에 오세요~ 외침	태권도수업 Children's Club 한국어수업	네롬이 아침에 로띠를 함 Youth Club의 카니발	
	경찰서에 시계 배부 성근이형 오심 -맛있는 닭요리!	미니시펄 방문 with 니할따따 캐롤연습		모라투와 시장에게 직접 시계배부 Youth Club의 카니발 준비		
12	13 GOCY	14 GOCY	15 GOCY	16	17	18 Colombo Trip With Moratuwa Univ. Students
			*비오는 날은 쓰레기 줍고 피케팅만 해요~			박물관 공원 인도음식점 골페이스
디고롤라가든 커미티미팅	새벽에 4명 출발 하필 루완 혼자 있을 때 18년만의 폭우. 람부카나 YMCA 킬리노치 유스 프로그램 군인이 중간에 와서 중단.	아침에 일어나서 군인들한테 퍼미션받으러 다님. 원래 가기로 했던 곳에서 수업은 못하고 그냥 얘기만 몇마디 하다 옴. 포인트 페드로 도착	아침에 콜롬보에서 온 싱할라 사람들 관객 만남. 포인트페드로 YMCA의 타밀 유스, 아이들 만남.	태권도수업-사람X Children's Club 한국어수업	밀로이씨네 방문 -가지 만드는 것 배움. 넬롬이 루완에게 킬리노치 보고회 해줌.	
저녁에 데릭이랑 에밀리가 집에와서 잠.						
19	20 Carol Concert	21	22	23 Nochiagama /Ruwan hospital	24 Nochiagama	25 Christmas
물주기		니마루(휴가)				
커미티미팅	허벌드링크 준비	루나와 병원 -허벌드링크 Youth Club	아쇼커와 찾아가는 캐롤 서비스에 대해 얘기. 집으로 찾아가는 캐롤 서비스 with Children's Club 아밀러의 슬픈 아코디언 루완 6춘기	모라투와 출발-페타-푸따람-노치아가마 저녁에 싱할라-타밀교류 프로그램 farewell콘서트 봄. 프랑스아저씨 루완 뼈가 붙음!!	아침에 산책. 강가 카메라 분실 루완 따따와 쇼핑.	아침 말린드라씨네 - 소세지 6종세트 (탈리니 파우), 에티살랏 세트:컵,모자 점심에 삼빳네 저녁 밀로이씨네
캐롤리허설 날개만들기 트리장식	넬롬이 장식할 소만듬 캐롤최종리허설 캐롤 콘서트 with Children's Club YMCA스텝과 외식-치즈고두!	넬롬이 크리스마스 케익을 사옴!! 집으로 찾아가는 캐롤 서비스 with Children's Club				
26	27	28	29	30	31 니할따따 생신	1(2012)
니마루		*비오는 날은 쓰레기 줍고 피케팅만 해요~				
미란집방문 락쉬커집방문	디고롤라준비	루나와 병원 -허벌드링크 뺨뽐집방문 book distributing 준비 니할따따네 가족만남	루나와 하스피털 방문 for Herbal Planting 루완이랑 아밀러랑 장보면서 디고롤라감 - 현 상황 알아봄. 수데시집방문	아쇼커와 앞으로의 일정정리 Book Distributing 락쉬커 형 수두어 이야기의 초대로 다시 집 방문 니말씨네방문	탁구 라니샤집방문 니할따따네 생일 파티방문 강가아밀러 말린드라씨네가족과 교회갔다가 하루홈스테이.	아침 7시 탈리니 넬롬 루완 말린드라씨네 방문. 끼리빳, 코키스, 계용 2종류, 뽈베니, 루두미리스, 스리랑카식 맛탕, 사모사, 마할루커리, 끼리토포, 버나드씨네방문 보드멤버 첫 인터뷰.

7기를 위한

# 리빙 카시강호

일주일 이렇게 삽니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05 40			wake up				
06 30	Wake up Preparing Having breakfast	Other works	Making herbal drink	Other works	Wake up Preparing Having breakfast	Play T.T. Badminton	Free Time
07			30 Distributing in Lunawa hospital				
08 30			Arriving in YMCA - Watering Plants, Picketing, Picking trashes in Galle road				
09	Preparing Class /Other works	Other works	Having breakfast	Other works	Preparing Class /Other works		
10			Preparing Program /Other works				
11							
12 30	Having lunch						
13 30							
14	Digarolla Garden Class	Other works	Preparing Program /Other works (Carol practice)	Other works	Preparing Class /Other works	Free Time	
15					Taekwondo Class		
16					Children's Club		
17					Having dinner		
18	Having dinner				Korean Class		
19	30 Committee Meeting	Having dinner	00 Youth Club	Team Meeting and rest at home	Team Meeting and rest at home		
20							
21	Team Meeting and rest at home	Team Meeting and rest at home					
22 ~			Team Meeting and rest at home				

병이라고 썩 내지 마시고 공부 한다 치고 점사점사 보세오^^...

# 사진으로 보는 12월에 있었던 일

박물관, 바다, 쓰레기 장, Youth club 축제 등등

1



1. 모라투와 대학교 학생들과 콜롬보 나들이  
모라투와 대학교 로터렉트 소속 학생 5인과 함께 콜롬보 나들이를 했다. 박물관과 골 스페이스라는 해변에 갔다.

## 2. 쓰레기 관리 부서 방문

보드멤버이신 니할 따따의 도움으로 쓰레기 관리부서에 방문, 스리랑카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다.

## 3. Youth Club 축제

YMCA에 있는 헬스장 개선 기금모음을 목적으로 카니발이 열렸다. 함께 참여했다.

2



3



# 사진으로 보는 12월에 있었던 일

캐롤 공연, 노치아가마 방문 등



4



5

## 4. YMCA 캐롤 공연 및 방문 캐롤 공연

12월 20일 YMCA에서 캐롤 공연이 있었다. 21일과 22 일에는 모라투와의 집들을 방문하며 캐롤 공연을 했다.

## 5. 노치아가마 방문

휴가기간 동안 1박2일로 노치아가마에 갔다 왔다. 방문한 지역은 JTS 에서 파견된 오성근 봉사단원이 활동 하고 있는 곳으로 타밀족, 싱할라족 청년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연말을 함께 보낸 고마운 사람들

크리스마스부터 연초까지 우리를 초대해주셨던 고마운 분들



# 연말을 함께 보낸 고마운 사람들

크리스마스부터 연초까지 우리를 초대해주셨던 고마운 분들



# 와루니 아까 '축' 결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



## 삼빳 아이야 '축' 득녀

아빠 님아 벌써부터 팔다리가  
길죽길죽 하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 찾아가는 요리교실

재료를 사 들고 집으로 찾아가서 배우는  
요리교실



## 아밀라의 만요카 요리

보드멤버이신 말린드라씨의  
부인 아밀라 씨께서 만요카  
요리법을 전수해 주셨다.

## 밀랑깃카의 요리교실

밀로이 씨의 부인 밀랑깃카 씨께서 가지 볶음, 빠리뿌 만드는 법을 전수해주셨다.



# 사진으로 보는 모라투와 아이들

디그롤라 가든, 칠드런스 클럽 아이들



## Cleaning Campaign

With Children's club and Digarolla Children



# "파티로의 초대"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연말 그리고 새해까지 우리는 정확히 17번의 초대를 받았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초대를 받을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많은 초대를 받았다. 물리는 날에는 초대를 받아도, 이미 초대를 받아서 갈 수 없다고 공손하게 거절을 하거나 연기를 하는 일도 잦았다. 집에 붙여놓은 달력은 파티 일정으로 가득 찼다. 아주 다양한 집들에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초대를 받았다. 아주 행복하고 감사한 나날들이었다.

뭐 요정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011/12/25 아 : 말린드라 점 : 쌤밭 저 : 밀로이	26  미란, 락시커	27	28 빼뚬  니할	29  수데쉬	30  락시커, 니말	31  라니샤 니할, 말린드라
2012/1/1 아 : 말린드라 점 : 저 : 버나드	2	3	4	5	6  앞집=집주인	7  가프리

## 초대자 정보

- 말린드라(Korean Committee Board member)
- 쌤밭(Moratuwa YMCA General Secretary)
- 밀로이(1기 Korean Committee Chairman 교회 친구)
- 미란(Youth Club member),
- 락시커(Moratuwa YMCA staff)
- 빼뚬(Children Club member)
- 니할(Korean Committee Board member)
- 수데쉬(Youth Club President)
- 수두아이야(락시커 형)
- 니말 따따(Korean Committee Board member)
- 라니샤(Youth Club member, Korean class student)
- 버나드(Moratuwa YMCA President)
- 앞집=우리집주인(Moratuwa YMCA Board member)
- 가프리(Korean Committee Chairman)





먼저 스리랑카의 초대 문화에 대해 먼저 말해보겠다. 우리는 아산에서 국내훈련을 할 때 싱할라어를 가르쳐주신 산지와 선생님께서 초대 받은 적이 있다. 가자마자 맥주를 한잔하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었다. 마지막으로 투게더 아이스크림까지 내주셨다. 그 때는 왜 술을 먼저 먹고 밥을 먹나 싶었는데 이번에 수많은 초대를 다녀온 이후 이 패턴이 스리랑카의 초대 공식임을 알게 되었다. 스리랑카의 초대공식을 정리해보면 일단 간단한 조각 케익을 먹고, 간단한 음료를 내오신다. 그리고 술을 한잔 한다. 보통 아락과 맥주가 준비되어 있다. 어떤 파티에서 술은 먹고 싶은 사람이 가지고 오라고 하기도 한다. 술을 먹고 나면 이제 각종 커리가 준비되어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 식사를 마치면 푸딩, 젤리,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까지 내오신다. 음식을 이 정도로 먹은 후에는 노래를 부르고 춤판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 한가지 신기한 점은 스리랑카에서는 누군가를 초대하면 손님들이 다 먹기 전에는 초대한 사람(주인)은 절대 먹지 않는다. 아무리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드시지 않는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기다리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이미 술과 간단한 음식을 먹은 후라 식사는 한 접시 정도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데, 끊임없이 “따워 간느~(더 먹어~)”를 외치신다. 내 위가 한 두 접시밖에 먹지 못해 죄송스러웠다. 하루에 여러 초대가 있던 날에는 배가 꺼질 틈이 없어 다음 초대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우리가 받은 초대 중에는 우리만을 위한 초대가 있었는데, 그러면 가족, 친구들을 초대한 가운데 그 중에 우리가 간 경우도 있었다. 우리만 갔을 때는 그 초대받은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한다는 느낌이었고, 우리만을 위한 파티가 아닐 경우에도 수많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냈다. 아직도 일가친척들이 멀지 않은 곳에 모여 사는 모습도 많았다. 그런 가족 중심적인 모습이 핵가족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우리나라와는 다른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다.

초대를 받아서 그냥 먹고 놀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알고 있던 분들과는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25일 저녁 초대였던 밀로이씨덕 초대와 새해 첫 날 찾아간 버나드씨의 초대가 기억에 남는다.

밀로이씨는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어머니 혼자 음식 준비가 어려워 그 날 하루 가정부를 고용하셨는데, 그 가정부의 가족 전체도 파티에 초대해 크리스마스를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다. 물론 가정부 아주머니의 가족들은 다소 불편해 보이기도 했으나 밀로이씨의 그 마음씀씀이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버나드씨가 말씀해주신 가진 자로서 좀 더 베풀어야 하고, 지역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생각, 전적으로 동의한다. 덧붙여 중산층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까지 언급하셨다. 버나드씨와 같은 분이 스리랑카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에 이런 분들만 가득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수많은 초대들로 바쁘고 정신 없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 아마 웬만한 연예인 뺀치는 일정을 소화한 것 같다. 체력의 문제로 모든 파티에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노는 것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놀 수 있는 것 같다. 모든 초대가 끝나고 나니 남은 것은 사고로 인해 빠졌던 살들이 순식간에 다시 붙었다. 아, 이 많은 파티에 대한 보답은 어찌하리~



# 친절한 지도

747

다양한 커리를 맛 볼 수 있음. 가격은 90~150루피 정도 커리 외에도 프라이라이스, 부리아니, 나시고랑이 있음.

저녁시간에는

로띠, 하피, 인디하피, 고푸, 또세이, 프라이누들을 먹을 수 있으나 점심에 비하면 맛이 좀 떨어짐. 그러나 맛은 있음.

## 락산호텔(명가)

저녁메뉴는 이 집 따라오는 데가 없음. 우리들 사이에서는 명가로 불림. 3대째 이어오는 하피아저씨가 갓 구워주신 뜨끈뜨끈한 하피를 맛 볼 수 있음.

그 외에도 로띠, 고푸도 있음.

추천 메뉴

‘로띠 캣발라 커리 다할라(로띠 썰어서 커리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힘. 인디하피고푸도 괜찮음.

## 믹스프룻 가게

골든포크와 과일가게 사이에 있는 구멍가게.

30~60루피의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음.

추천 메뉴는 믹스프룻. 4종류의 과일과 아이스크림을 한번에 즐길 수 있음. 그러나 꽤 단것이 단점. 가끔씩 아보

## 멤빌리가게

신선한 멤빌리를 30루피에 배불리 마실 수 있음. 물을 마신 후 멤빌리 속을 꼭 끊어먹어야 하는 것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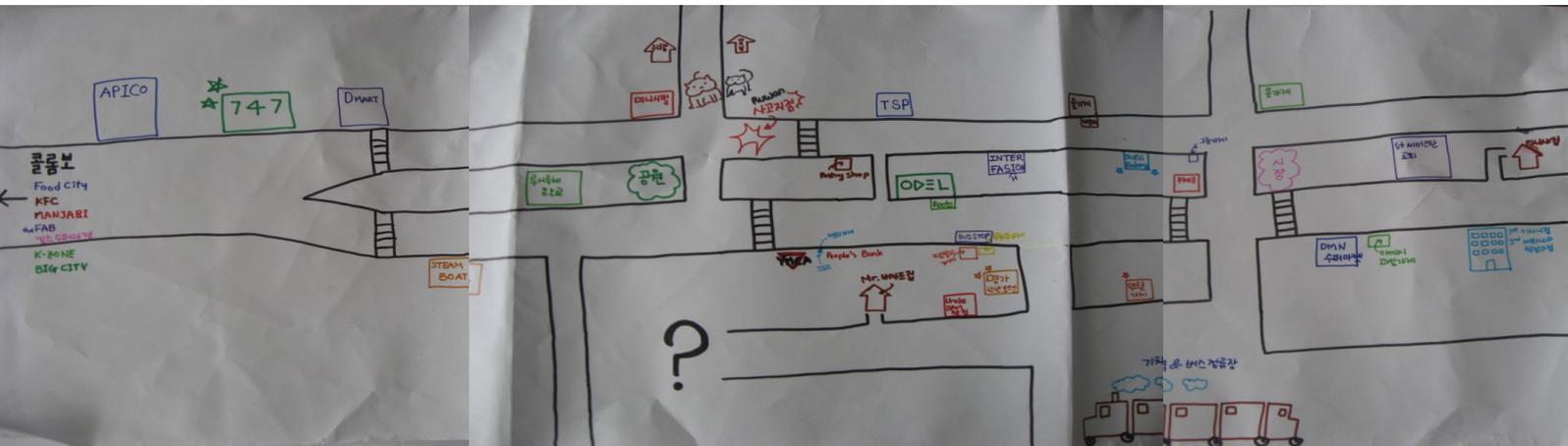
주인아저씨가 바뀌어서 슬픔TTT

## 스위스 베이커리

공장에서 가져온 빵이 아닌 주인아저씨가 직접 구운 빵을 먹을 수 있음.

타이밍만 잘 맞추면 갓 구운 빵을 맛 볼 수 있음.

개인적으로 시니쌈볼 빵을 추천



## Inter Fashion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옷들을 접할 수 있음.

그리고 아름다운 아밀러(혁준)의 천사 안젤리도 볼 수 있음.

## D-mart

전통의상의 옷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음.

아줌마 스타일의 옷들이 많음. 부모님 선물로 추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임.

## Odel

이 동네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옷가게.

But, 비추.

가격도 세고 사이즈도 다양하지 않음.

Odel은 콜롬보 본점을 추천함.(그러나 이곳도 그닥 별로임)

시장,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옷가게들이 오히려 편찮을 수 있음.

## Manjari

Children's Club 네마샤&프라가띠가 추천해준 곳.

옷부터 다양한 잡화까지 구매할 수 있음.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고 먼지가 많지만 뒤져보면 건질 수 있는 것이 많음.

## 기타

시계탑 근처에서 아쇼키(개)와 수데샤니(개)를 만날 수 있음. 매우 친절하게 다가옴. 가끔씩 킁과 펀치를 날림.

하고 싶은 말

이곳 저곳 많이 돌아다니시길.....

By Nelum(초록)



# 인물탐구

- 스리랑카에서 만난 사람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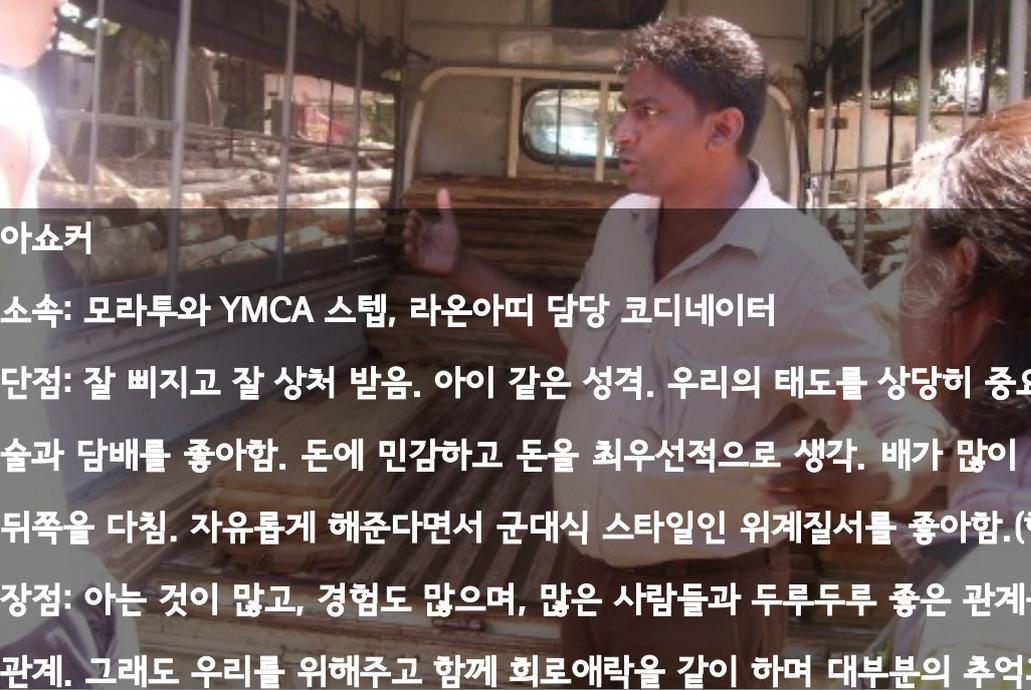
작성자: 아밀러 (오혁준)

**이 인물탐구는 본인의 사적 감정이 들어갔음을 밝힙니다.**



**오성근**  
소속: JTS(정토회) 소속 자원활동가  
나이: 서른 갓 넘음. 2011년과 2012년 나이가 같음.  
전문분야: 요리, 나는꿈수다팬  
김동훈 팀장님을 서로 알고, 같이 스리랑카에 있다는 이유로 처음 알게 됨. 만나보니 완전 재미있고 유쾌한 형님. 게다가 조언도 잘해주시고, 맛있는 한국음식도 만들어주시고, 냉장고 얼음도 깨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뭐 헤드린 것 하나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주신 분. 정말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원활동가다 라고 느끼게 만든 분. 우리 집에도 몇 번 와서 자고, 형 일하는 곳도 놀러 가 자기도 하며 이런저런 교류가 잦았음.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든든하고 유쾌한 형님.





아쇼커

소속: 모라투와 YMCA 스텝, 라온아피 담당 코디네이터

단점: 잘 빠지고 잘 상처 받음. 아이 같은 성격. 우리의 태도를 상당히 중요시 함. 공과 사 구별이 별로 없음.

술과 담배를 좋아함. 돈에 민감하고 돈을 최우선적으로 생각. 배가 많이 나왔음. 한국에서 3년 정도 일하며 어깨 뒤쪽을 다침. 자유롭게 해준다면서 군대식 스타일인 위계질서를 좋아함.(한국 공장에서 사장님한테 배운 거 같음)

장점: 아는 것이 많고, 경험도 많으며,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 하지만 보드멤버와는 대치

관계. 그래도 우리를 위해주고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대부분의 추억과 기억을 나눈 유일한 사람이자, 유일한

우리의 코디네이터. 내겐 가족과도 같은 사람.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사람.

더 늦기 전에 원하는 대로 해외에 나가 일하거나,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길.





이아나

소속: 라온아띠 담당 간사.

종교: 천주교

비밀: 좋아하는 남자 있음. 100미터 미인. 알고 보니 나이 엄청 어리심. (그래도 누나임)

장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이 뛰어나고 조언을 잘해줌.

중간평가단으로 잠시 스리랑카 방문. 중간평가 방문을 통해 나의 정신 상태를 모두 헤집고 감.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됨. 한국 돌아가면 Y에서 일하고 싶다 했더니

자리 없다고 함.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게 만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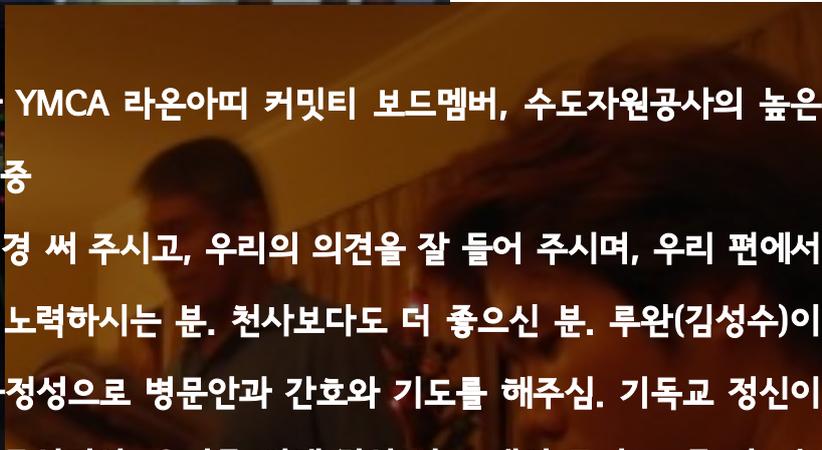




**밀로이**  
 소속: 우스와테 지역에 살고, 라온아띠와 예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분  
 가족사항: 웃음이 넘치고 요리를 아주 잘하는 부인과, 피아노를 잘 치고 수줍어하는 딸, 모라투와에서 제일 잘 생긴 아들을 데리고 있음.  
 특이사항: 유머감각이 뛰어남. 그의 표정만 봐도 덩달아 즐거워 짐. 항상 우리를 따듯하게 맞아주시고, 아들딸처럼 대해주시는 분.  
 집: 2층에서 보이는 바다와 야자수의 풍경은 허니문을 오고 싶게 만들 정도로 끝내줌. YMCA 보드멤버도 아니고 스텝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녀들이 YMCA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와 많은 교류를 하고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 시종일관 웃음이 끊임이 없고, 가족 중심적이며, 항상 맛있는 음식과 노래와 악기로 스리랑카에서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심. 매주 방문하고 싶은 집이자 가족이자 사람. 음악을 즐길 줄 알고,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만들 줄 아시는 분. 밀로이 같이 베풀 줄 알고 가족 중심적이며 사람을 살갑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들.



**니할**  
 소속: 모라투와 YMCA 라온아띠 커밋티 보드멤버, 수도자원공사의 높은 직책에서 근무 중



항상 우리를 신경 써 주시고, 우리의 의견을 잘 들어 주시며, 우리 편에서 생각해 주시려 노력하시는 분. 천사보다도 더 좋으신 분. 루완(김성수)이 다쳤을 때 지극정성으로 병문안과 간호와 기도를 해주심. 기독교 정신이 깊으시고, 가족중심적임. 우리를 위해 항상 차로 태워 주시고, 물 나르는데 도와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탁구도 가르쳐 주시고, 드린 것 하나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도 많으신 분. 어떻게 감사 드려야 할지 모르겠음. 자원 활동으로 하는 보드멤버 일을 제일 열심히 자기 일처럼 해 주시고, 보드멤버에 대한 나의 편견을 산산이 깨주신 분. 내가 만약 늙는다면 니할과 같이 늙고 싶다고 다짐하게 만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신 분.



히루니

소속: 라온아띠 4기 스리랑카팀원. 본명 김보람.

좋아하는 노래 : 널 사랑하겠어.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타를 발로 치)

한국에서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스리랑카에 음. 거의 3주 가까이 있다가 호주로 출국, 야마기시즘 공동체로 들어감. 호주 간 이후 지금은 거의 연락 두절.

스리랑카에 있는 동안 우리 집에서 꽤 많이 신세를 짐. 요리를 엄청 못함. 술을 밝힘. 하지만 금방 얼굴 빨개짐. 큰 활동이나 목적 없이 우리랑 놀고 그렇게 쉬다 감.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보고, 아이들 학교 등교하는 것도 봄. 같이 별도 보고, 치즈 고두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함.

라온아띠라는 이유 때문인지 이상하게 금방 친해짐. 호주에서 살아서 돌아오길.



데릭

국적: 케냐

소속: 케냐 YWCA (YWCA이지만 남자임)

좋아하는 것: 코카콜라, 스리랑카여자

처음에 모라투와에 1일 자원 활동하러 왔다가 함께 페인트칠하며 친해짐. 성격이 매우 좋음. 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났음.

함께 2박3일간 스리랑카 북쪽 YMCA에도 같이 가 먹고 자고 프로그램도 진행함. 우리 집에 와서 몇 번 자고 함께 놀러 다니며 더욱 친해짐. 일도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도 뛰어나며, 팀원 다섯 명 모두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아프리카에 대한, 케냐에 대한 편견을 깨줌.



**말린드라**  
 소속: 모라투와 YMCA 라온아띠 커밋티 보드멤버, 유스클럽 체어맨, 에티셀랏 통신회사의 높은 직책에서 근무 중  
 우리를 많이 아껴주시고, 집에 초대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며 우리 편에서 생각해 주시는  
 분.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 4명의 아버지. 요리 잘하고 친절한 아내의 남편. 가족 중심적이고 드린 것 하나 없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신 분. 니할과 마찬가지로 보드멤버 중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분. 나에게 가족문  
 화와 지역 공동체에 대해 깨닫게 해주신 분. 스리랑카에 무엇을 주러 왔다고 생각했던 나의 기존의 생각을 산산  
 조각내고, 오히려 이곳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가며 정작 주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닌 한국의 지역사회라  
 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

5개월 동안 처음으로 홈스테이를 한 곳. 모든 집들 중 가장 음식이 맛있고, 가족이 정말 화목해 보임.

이러한 자녀를 갖고 싶고, 이런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함.



## 라니샤

소속: 한국어 수업 중급반 학생, 유스클럽 멤버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한국에 많은 관심이 있음. 영어를 잘하고, 잘 웃으며, 우리에게 항상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함.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아 미안하면서 고마운 친구. 12월 31일 날 라니샤 집에서 약 7시간을 넘게 같이 놀고 먹고 노래 부르면서 더욱 가까워짐.



## 하렌

소속: 라니샤 친구

12월 31일 라니샤 집에서 같이 만남.

성격 좋고,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 키가 흰칠하고 유스클럽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스타일.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밥도 먹으며 친해짐.



## 마리골레어

소속: 라니샤 친구

12월 31일 라니샤 집에서 같이 만남.

스리랑카 사람 이라기엔 조금 이국적으로 생김.

성격 좋고, 웃음이 매력적이며 영어를 잘해 많은 이야기를 나눔.

함께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대화도 나누며 좀 더 가까워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좋은 인연 이어가길.



## 쌘빳

소속: 모라투와 YMCA 사무총장

사무총장이라 하기에 매우 젊은 나이. 최근에 아기를 낳음.

유머코드가 있음. 목소리가 특이함. 키가 큼.



## 락시커

소속: 모라투와 YMCA 스텝

음악을 좋아함. 박자감이 뛰어남. 유머코드가 있음. 매우 말랐음. 설탕을 엄청 넣어 먹음. 노는 것을 좋아함.

정원을 가꾸는 순수청년의 모습도 있음.



## 와루니

소속: 모라투와 YMCA 스텝, 회계담당, 라온아띠 부 코디네이터

최근에 라싼뜨와 결혼 함. 글씨를 매우 잘 씀. YMCA 홍일점. 모라투와에서 미인 측에 속함. 자기만의 유머코드가 있음.

엄청 말랐으나 배가 조금 나옴.



## 세하나

소속: 니할의 딸

서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기타 치는 것을 좋아해 쉽게 친해 짐. 같이 콜롬보 나들이도 가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음악 콘서트도 같이 가고 이야기도 많이 함. 우리 팀원들과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 아버지한테 애교가 넘치고 영어를 매우 잘함.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친구.



## 찬두루

소속: 스리랑카 YMCA 연맹 코디네이터

별명: Mr. Soon (빨리 가자며 Soon 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

2박3일 북쪽지역 프로젝트 여행을 통해 좀 더 가까이 알게 됨. 행동력과 실행력이 뛰어남. 하지만 진두지휘의 성격이 강해 팀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음. 우리 팀 여자들이 좋아함. 캐릭터 있음. 나를 당혹스럽게 했던 대답 두 가지> 어떤 사람의 행동을 개인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문화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팀을 서포트하는 것보다 리드하는 거라고 대답한 것.



## 오싼뜨, 루시루 집 가족 (엄마, 따따 네 집)

소속: YMCA 안에 있는 집 가족

아이들 둘이 너무 귀여움. 항상 우리를 따듯하게 맞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심. 내가 해주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 가족. 스리랑카에서 그들보다 잘 먹고 잘살고 있는 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픔.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조금 조금씩 다가가가 그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 하고 있음.

아버지는 차도 풀여 주시고, 청소도 매일 하시고, 화단도 가꾸시고 하기에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음. 물질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최대한 마음으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 중.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END POVERTY

දිළිඳුකම තුරන්කරමු

\*b Y RaonAttigama

## 갓프리

소속: 모라투와 YMCA 라온아띠 커밋티 চে어맨

우리 팀 사이에서는 짤돌이로 불림.

모든 활동에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밥에 재 뿌리는 것을 좋아함. 근검절약에 힘쓰며 빈손으로 집에 방문을 잘함.

그래도 우리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얘기를 잘 들어주시며,

매주 회의를 하며 চে어맨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চে어맨.



## 니말

소속: 모라투와 YMCA 라온아띠 커밋티 보드멤버

타이슨을 닮은 손녀가 있음. YMCA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활동함.

장난을 잘 치고 유머감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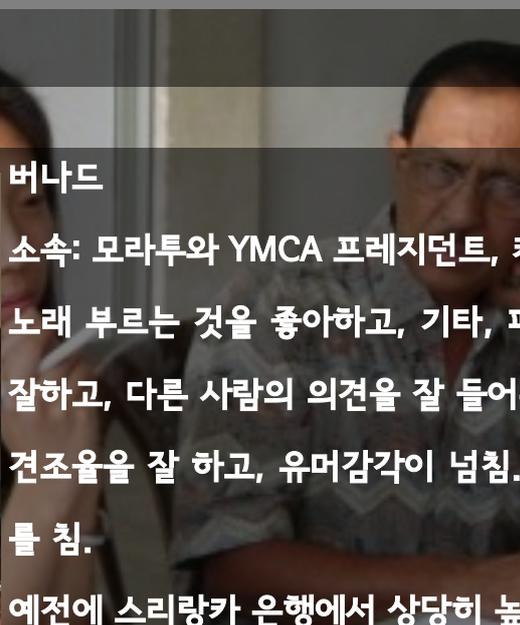
## 버나드

소속: 모라투와 YMCA 프레지던트, 커밋티 보드멤버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기타, 피아노 등 악기를 잘 다룸.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며, 웃음이 매력적이신 분. 의견조율을 잘 하고, 유머감각이 넘침. 당구를 좋아해 거의 매일 당구를 칩.

예전에 스리랑카 은행에서 상당히 높은 직에 있다가 은퇴한 뒤

YMCA에서 자원 활동 일을 하게 됨. YMCA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함.



## 수데시

소속: 모라투와 YMCA 유스클럽 2012년 회장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베풀기 좋아하며, 사람 냄새 나고, 성격 좋은 친구. 영어를 잘해 소통하기 쉽고, 무엇을 묻든 성의껏 진심으로 대답해주며, 유스클럽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고, 프로그램 기획능력이 뛰어남. 모라투와 YMCA 차기 보드멤버 급. 가장 기대되는 유스 멤버.

가족임이 믿기지 않은 예쁜 여동생이 있음.



## 수팜

소속: 모라투와 YMCA 유스클럽 멤버

수데시하고 같이 다님. 수데시 왼팔 정도.

느릿느릿하면서 아이 같은 성격. 장난을 잘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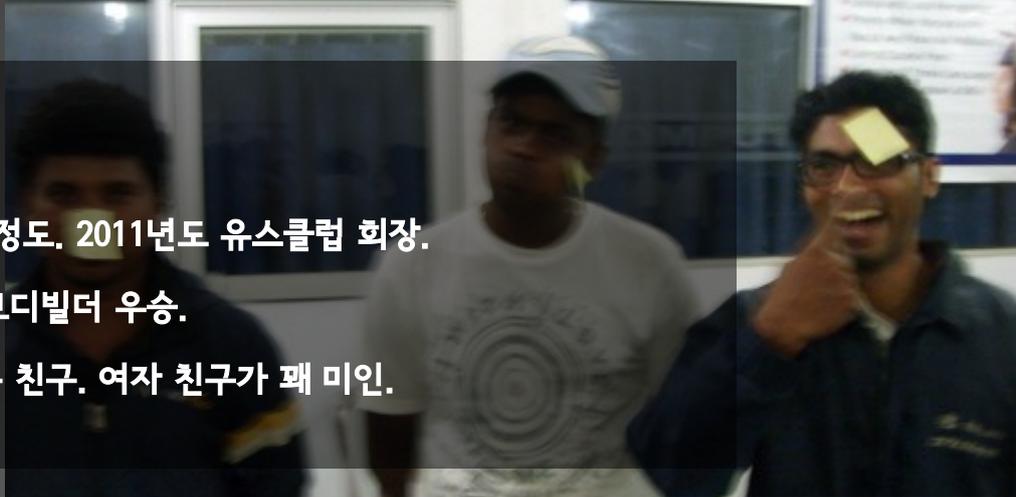
## 쿠산

소속: 모라투와 YMCA 유스클럽 멤버

수데시하고 같이 다님. 수데시 오른팔 정도. 2011년도 유스클럽 회장.

근육운동을 좋아함. 모라투와 YMCA 보디빌더 우승.

나이에 맞지 않게 늙어 보임. 성격 좋은 친구. 여자 친구가 꽤 미인.



## 산진(산지와)

소속: 모라투와 YMCA 유스클럽 멤버

파마머리. 우리 벽화에도 등장시킴. 어린 나이 입에도 아이가 셋 있는 가정의 아버지. 근육운동을 좋아해 매일 헬스장에 있음.

특특 운전사도 하고, 페인트칠 일도 하며 투 잡을 뛰고 있음. 수데시와는 다른 무리. 별로 건전하지 못함. 주의할 것.



## 삐뚤

소속: 모라투와 YMCA 칠드런스클럽 멤버

가족 중심적이고 참 착한 아이.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

칠드런스 클럽 여자들과 우리 팀 여자 팀원들이 좋아함.

손으로 치는 드럼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며, 춤과 노는 것을 즐겨 함. 키는 큰 편이나 허우대 같기도 함.



## 탁실라

소속: 모라투와 YMCA 칠드런스클럽 멤버

목소리가 특이함.

행동과 말투가 너무 재미있음.



## 이시니

소속: 모라투와 YMCA 칠드런스클럽 멤버

수줍음이 많음. 처음에는 거의 몇 마디 못했으나 이제는 제법 대화를 나눌 수 있음.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아이. 세하니와 붙어 다님.



## 세하니

소속: 모라투와 YMCA 칠드런스클럽 멤버

수줍음이 많음. 처음에 말 수가 적어 말 붙이기 힘들었으나 이제는 제법 대화를 나눌 수 있음. 이시니와 붙어 다님.

## 다누시커

소속: 모라투와 YMCA 칠드런스클럽 멤버

칠드런스 클럽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 장난기가 많고 웃는 것이 매력적인 아이.

머리가지고 장난을 잘 칩. 태권도 수업에도 옴.



**디미트리**

소속: 모라투와 YMCA 칠드런스클럽 멤버

독재자와도 같음. 이끌고자 하는 성격이 강함. 칠드런스 클럽 멤버 안에서 호불호가 나뉨.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음. 상당히 잘생김. 영어를 매우 잘하고 몸도 좋음. 칠드런스 클럽에서는 독재자의 모습이나 코리안 클래스에서는 바보 그 이하임. 상당히 다른 두 성격이 공존.



**프로묵**

소속: 모라투와 YMCA 칠드런스클럽 멤버

사람을 좋아하나 너무 진득하게 좋아해 사람을 귀찮게 하는 아이. 장난을 많이 치고 말해도 듣지 않고 한국어 수업에는 초 저의 집중력을 보이며 분위기를 망침. 마치 부모라도 되는냥 사사건건 간섭함. 그래도 싫지만은 않은 귀여운 아이.



**다루시**

소속: 모라투와 YMCA 칠드런스클럽 멤버

말투도 느리고, 행동도 느림. 디고롤라 가든 수업에 매주 자원 활동을 하고 있음. 칠드런스클럽에서 인기가 많은 편. 칠드런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음. 빼꼼과 사귀는 거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성격이 참 좋음.



**프라가띠, 네마샤 엄마**

소속: YMCA 칠드런스 클럽 멤버 프라가띠, 네마샤 두 딸의 엄마

항상 우리를 살갑게 맞아주시고, 농담도 잘하시며, 맛있는 것도 직접 만들어 주심.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귀여우시며, YMCA에 오는 엄마들 중 가장 우리와 가깝게 지냄.

루완(김성수)이 다쳤을 때는 진심으로 걱정해주심.



## 루카터

소속: 디고롤라 가든 아이

장난이 많고, 해맑은 아이. 말이 엄청 빨라 알아듣기 힘들. 크리켓을 잘 하고 좋아함.



## 이수루

소속: 디고롤라 가든 아이

장난이 심하며, 멈출 줄 모름. 글씨를 잘 쓸 줄 모름.

키도 크고 나이도 있는 편에 속하나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음.

그래도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면 잘 따르는 사랑스런 아이.



## 니뿌니

소속: 디고롤라 가든 아이

사람에게 정을 많이 주며, 진득하게 달라붙는 아이. 남자 단원들을 좋아하며 기수구분을 잘 하지 못해 자꾸 다른 이름을 부름. 주위 산만해 수업에 잘 집중은 못하나 노는 것은 잘함. 그녀만의 걸음걸이가 있음. 그래도 가족을 잘 챙기고, 사랑스런 아이.



## 차나

소속: 디고롤라 가든 아이

나와 영어 수업 1:1 과의를 하며 친해진 아이. 웃음이 해맑고 장난을 잘 치며 흰칠한 외모를 가지고 있음. 영어는 그나마 디고롤라 아이들 중에선 제일 잘하는 편. 아이라고 하기엔 이제 거의 성인인 친구. 음악을 좋아하고 크리켓을 좋아함. 매일 운동을 해 몸이 좋음.



## 카우살레아

소속: 디고롤라 가든 아이

가족을 잘 챙기고, 공부를 열심히 하며, 이것저것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아이. 앞날이 기대되는 아이.



## 지민주

소속: JTS(정토회) 이기도 하며 연구하러 온 연구생이기도 함. (스리랑카에 와서 연구 주제를 바꿈)

장점: 성근 형 보다 한 살 어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 동안. 타밀, 싱할라 노래 잘 부름.

이런저런 조언도 잘해주시고, 현명하며, 배려심이 깊음. (지난 월간보고서의 답장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서로 이태주 교수님을 알고 있어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었음. 한국가면 성근형과 함께 꼭 다시 만나고 싶음.

하시는 연구 무사히 잘 마치시길.



## 이혜정

소속: 한국YMCA 연맹 회원운동국 국장

비밀: 아산 YMCA 사무총장님과 사랑하는 사이.

좋아하는 것: 쇼핑, 휴식

재밌고 유쾌하신 분이며 그 안에서도 촌철살인 같은 조언과 지적을 잘 해주심.

우리 팀 여자 단원들이 매우 좋아하는 분.

## 에밀리

국적: 케냐

소속: 케냐 YWCA

군것질을 많이 함. 목소리가 상당히 하이톤 임. 데릭과 함께  
음. 같이 여행도가고 일도 하며 친해짐. 생김새와 다르게 18살  
정도 밖에 안 됨. 가끔 혼자 노래를 부름.



## 린, 커린

국적: 노르웨이

소속: 노르웨이 YWCA

데릭과 에밀리와 함께 만남. 자기들만의 세계가 강해 많은 이야기는 하지 못함. 군것질을 많이 함.



## 747 아저씨 칸차너

소속: 747 레스토랑 주인

매일 점심으로 사먹는 747 레스토랑의 주인. 웃음이 매력적이고 영화배우를 닮음.

항상 따뜻하게 우리를 반겨주시고, 신경 써 주시며,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

최근에 이 가게도 치솟는 물가로 인해 10 루피를 인상함.

## 믹스프룻 샐러드 주스 아저씨

소속: 믹스프룻 가게 주인(기차역 앞 Golden Pork 가게 왼쪽 옆 옆에 있음)

우리를 항상 잘 반겨주시고, 재치도 있으시며, 믹스프룻 주스가 상상을 초월하게 맛있음. 한화 600원 정도. 가끔은 다른 주스들도 그냥 주시기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한 스푼 더 주시기도 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유스클럽 카니발 때도 와 주셔서 더 가까워 질 수 있었음.

## 멤벨리(킹코코넛) 가게 아저씨

소속: 멤벨리 가게 주인(YMCA 오른쪽 편 버스정류장 근처 가게)

항상 깔끔하게 옷을 입고, 빠져들 것만 같은 미소를 날리시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시는 분.

스리랑카 최고의 멤벨리를 선보이며, 칼 다루는 솜씨가 경력을 말해줌. 집에 멤벨리 나무가 많다 하여 가보고 싶게 함. 둘이 가서 멤벨리 하나 달라고 하면 그냥 하나를 더 주시기도 하고, 돈을 적게 받거나 안 받고도 멤벨리를 주시기도 함.

한화 300원 정도. 연말에 갑자기 종적을 감추고 지금은 다른 아저씨가 가게 운영 중. 다시 돌아오시길.



## 인디거

소속: YMCA 특특 세발 자동차 운전기사

웃는 게 매력적인 아저씨. 몸에 문신이 많음. 어릴 때 좀 놀아 보임. 항상 밝은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 걸고 인사해 주시는 분.

## 안젤리

소속: 인터패션 근무

웃 사러 갔다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됨.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친구.

자기 생일날 아이스크림 케익을 사달라고 했지만 사주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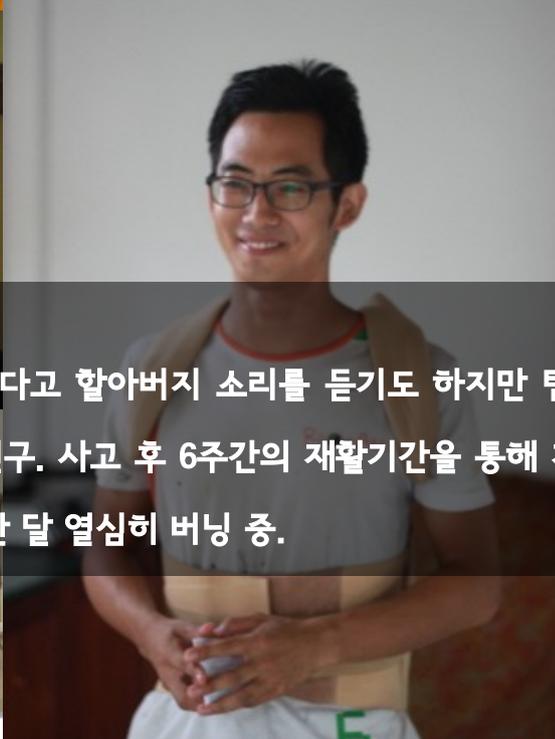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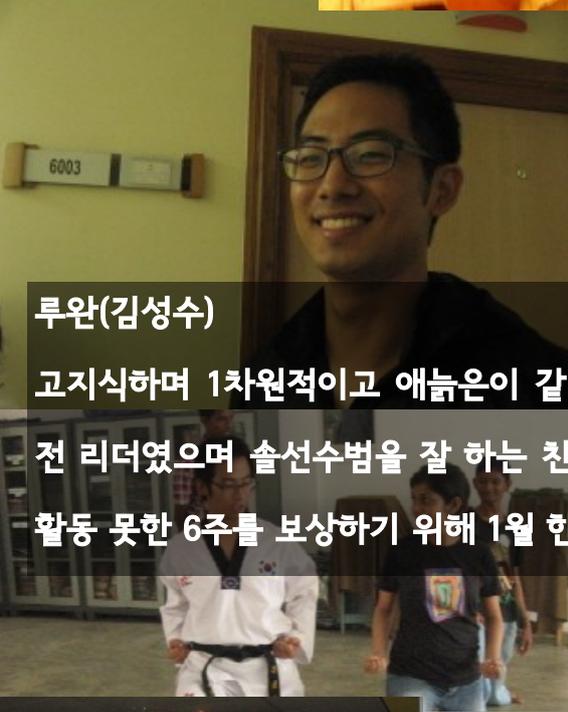
9월 이후로 한동안 못 만났다가 1월 1일에 버스 안에서 극적인 재회. 출국 전엔 인터패션 한번 가야지.



**넬름(이초록)**

까면 깎수록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친구. 아는 지식이 많고, 상황과 관계에 있어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중심에 있진 않지만 중심이 잘 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친구. 단순 반복을 좋아하고, 몸에 좋은 것을 잘 찾는 능력이 뛰어나고, 팀에서 식약청 직원과 같은 역할을 하여 못 팀원들이 건강치 못한 음식을 먹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함. 중추신경보단 말초신경과도 같은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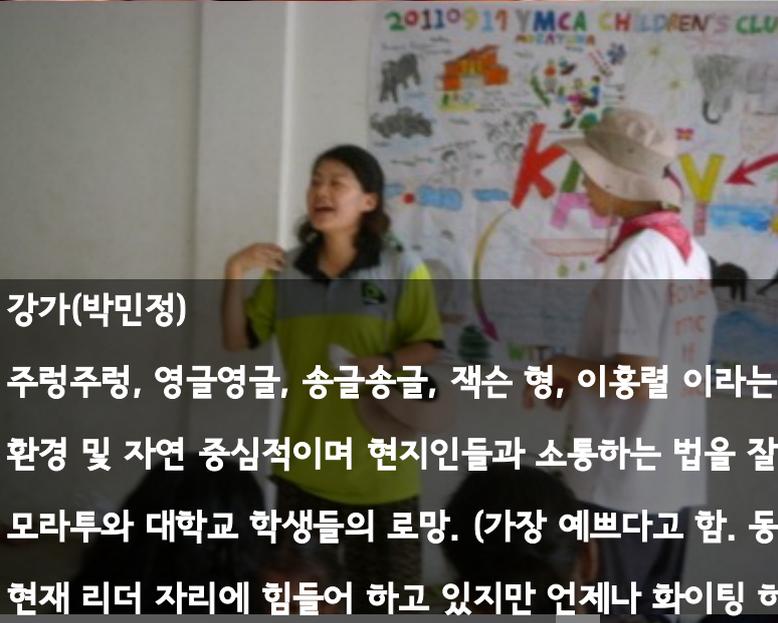




루완(김성수)

고지식하며 1차원적이고 애늬은이 같다고 할아버지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팀의 타임 키퍼고, 행동대장이고, 전 리더였으며 솔선수범을 잘 하는 친구. 사고 후 6주간의 재활기간을 통해 지금은 완쾌. 금간 뼈도 다 붙음. 활동 못한 6주를 보상하기 위해 1월 한 달 열심히 버닝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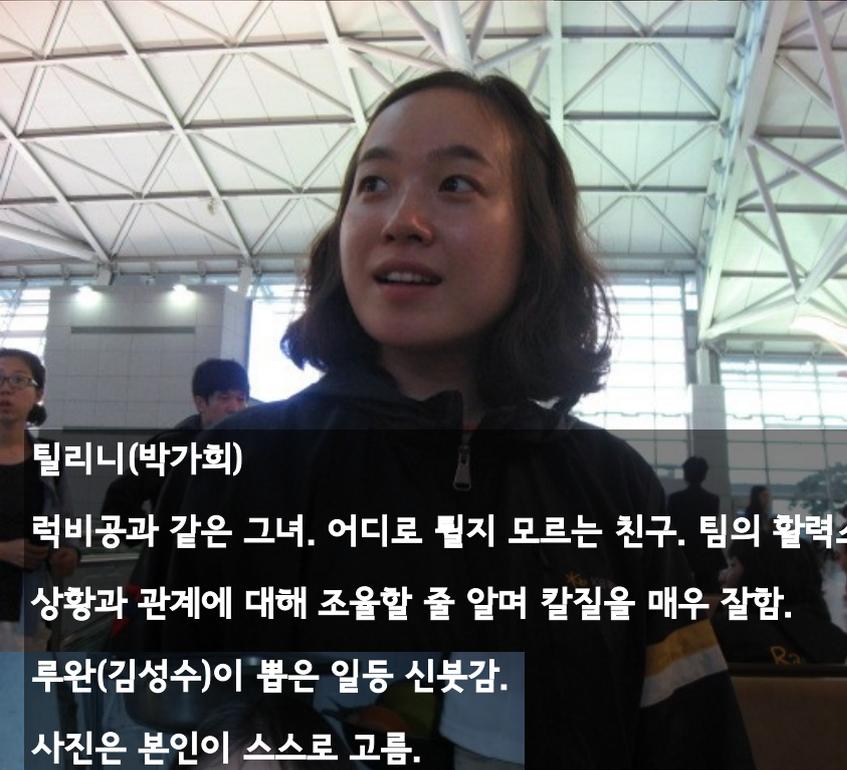




강가(박민정)

주렁주렁, 영글영글, 송글송글, 잭슨 형, 이홍렬 이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모든 일에 열심이고 환경 및 자연 중심적이며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친구. 모라투와 대학교 학생들의 로망. (가장 예쁘다고 함. 동의할 수 없음) 현재 리더 자리에 힘들어 하고 있지만 언제나 화이팅 하길.





틸리니(박가희)

럭비공과 같은 그녀. 어디로 뺄지 모르는 친구. 팀의 활력소이자 웃음코드 제조기.

상황과 관계에 대해 조율할 줄 알며 칼질을 매우 잘함.

루완(김성수)이 뽑은 일등 신붓감.

사진은 본인이 스스로 고름.



인물탐구 끝

아밀러 오혁준



# Who is Amila?



사진만으로도 알 수 있다.....

By Nelum(초록)

# 지난 11월 보고서 왜? 에 대한 작은 대답



지난 11월 보고서 왜  
스리랑카는 분리  
수거 시스템이  
채워져 있어 있지  
않을까?



정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아  
직 그만큼 여유  
가 생기지 않아  
서? 산업발전과  
환경보전이 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 우리  
나라 분리수거  
시스템은 또 어  
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 많  
은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에 대해 얼마  
나 관심이 있을  
까?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 우리  
나라 분리수거  
시스템은 또 어  
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 많  
은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에 대해 얼마  
나 관심이 있을  
까?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 우리  
나라 분리수거  
시스템은 또 어  
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 많  
은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에 대해 얼마  
나 관심이 있을  
까?



에 대해 할 작은 대답



# 지난 11월 보고서 왜? 에 대한 작은 대답

지난 11월 보고서 왜 스리랑카는 분리수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까? 췌장염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그만할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산업발달과 환경보전이 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걸까? 우리나라 분리수거 시스템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 많은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에 대해 작은 대답

스리랑카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는 분리수거 한 후의 쓰레기들이 어디로 갈까?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았다. 우리가 처음 왔을 때 YMCA에서 나오던 쓰레기들은 분리수거고 뭐고 그냥 한데 다 모아서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장에 그냥 버려졌다. 그래서 분리수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분리수거하자고 종이랑 플라스틱을 따로 모을 수 있도록 코팅해서 붙여놓기까지 했는데TAT) 그때는 그래도 쓰레기가 갈 곳이 있다는 생각에 분리수거에 대한 찝찝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날... 그 쓰레기장이 갑자기 그것도 하루 만에 '뽕'하고 사라졌다. 정부가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그냥 그 쓰레기장을 없애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YMCA 뒤뜰에서 쓰레기들을 태우고 있었다. 그냥 화가 나고 답답했다. 연기도 매웠고,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분이 나빴다. 사실 보드멤버들에게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나고 물어보면 다들 미니시펄(Municipal: 시청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간다고 했다. 그런데 왜 YMCA에는 오지 않는걸까?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봐도 온다 온다 말만하고 지금 거의 몇 년째 안 오고 있다고 했다.

보드멤버 중 니할 따따(Nihal Ferdinando)가 미니시펄 환경부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자리를 만들어주셨다. (사실 그 전에도 전화도 하고 담당코디 아쇼커와 우리 다섯이서 방문했는데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돌아온 적이 있었다.)

미니시펄은 우리 집과 몇 발짝 떨어진 엄청 가까운 곳에 있었다. 창고인줄 알았던 건물 안에 들어가보니 쓰레기들이 분리되어 있었다.(전 페이지 사진 참조) 플라스틱, 폴리틴, 병, 종이, 코코넛 껍질 등등... 이렇게 모아진 쓰레기들을 필요한 회사에 판다고 했다. 지금은 아직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모든 곳의 쓰레기들을 수거하지는 못하고 일정 지역에만 집집마다 폴리섹이라는 마대자루같이 생긴 것을 나누어주고 병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을 담도록 해서 한 달에 한 번 수거해 간다고 했다. 이렇게 수거된 것들을 팔아서(대략 한국 돈으로 1kg당 플라스틱보틀- 250원, 흰병- 450원, 갈색병- 350원, 초록병- 250원) 번 돈이 모이면 분리수거 수거하는 구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한다. 니할따따 말로는 코코넛 껍질은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어떤 물질의 주 원료라고 했다. 그래도

여기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YMCA의 쓰레기를 수거해달라고 직접 말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또 마음이 편해졌다.



과연 분리수거가 좋지만 한 것일까? 에 대해 팀원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적도 있다. 오히려 분리수거된 것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장에서 더 오염물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초기비용이 충분치 않으면 이런 분리수거 시스템 같은 것은 정말 힘들 것이라는 얘기도.

어쨌든 지금 스리랑카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면 되는 거겠지.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YMCA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을 자꾸만 태우고, 미니시펄에 미리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도 담당자가 없다고 했을 때, 만나서 얘기를 하고도 한동안 YMCA에 쓰레기를 가지러 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되고 중간에 턱턱 막힐 때, 너무 답답하고 미니시펄이 너무 밍고 도무지 이래서는 뭣도 안될 것 같았는데...



지금 미니시펄에서 YMCA의 쓰레기들을 수거해 가고 있고, YMCA 안에서도 전 기수가 만든 재활용 쓰레기통들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계속 해서 노력 중이다.

그리고 지난 기수가 설치한 기차역의 쓰레기통도 지금 재활용 쓰레기통 하나만 있어서 일반쓰레기통처럼 쓰이고 있다. 거기도 적어도 두 개의 쓰레기통을 한번에 두어야 재활용의 의미가 있을 텐데...

여기 시스템에 맞춰, 지난 기수가 남겨놓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만 더 생각 해 보면 아직도 남았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해 놓은 것들이 제대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

# 지난 11월 보고서 왜? 에 대한 작은 대답

그리고 우연히 초대받아 간 코리안 커미티 체어맨 Mr.갓프리(Godfrey) 옆집이 바로 모아진 재활용 가능한 Polythene을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공장이었다!

지난 11월 보고서 왜  
스리랑카는 볼  
리추거 시스템  
이 켈리로 되어  
있지 않을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그 말할 여  
유가 생기지 않  
아까? 산업발전  
과 환경보전이  
같이 이루어질  
추는 없는 걸  
까? 우리나라 볼  
리추거 시스템  
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까? 스리랑카 사  
람들은 이 많은  
쓰레기들이 어  
떻게 처리되는  
지에 대해 얼마  
나 관심이 있을  
까?

에 대한 작은 대답



더러운 폴리틴들을 씻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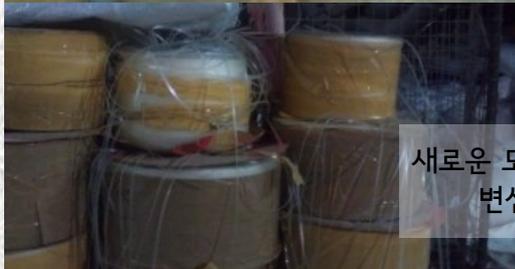
말려서



모아놓고



기계에 넣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



바로 옆집에 이런 공장이 있으면서 여태껏 우리에게 가보라고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눈이 멀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인데, 공장주가 그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지 않고, 공장 운영을 환경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Mr.갓프리가 말했다.

**그 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 싶었다.**

그래도 모아진 쓰레기들이 재활용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니 또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 지난 11월 보고서 왜? 에 대한 작은 대답

지난 11월 보고서 왜 스리랑카에는 길거리 개들이 이렇게나 많을까?

보신량이 없어서 그럴까? 예네는 쥘 죄로 길에서 태어나서, 그냥 길에서 태어나서 먹을 것이라고는 쓰레기통에 있는 것 밖에 없어서, 길에서 자고, 놀고, 먹고 할 뿐인데, 그냥 길거리 개라는 이유로, 더럽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사람들에게서 슬픔 받고 살아야 하는 걸까?



**스**리랑카 식당의 밥양은 참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남긴다. 그리고 가게마다 개 한 마리씩은 꼭 있다. 강아지들도 자주 눈에 보인다. 새벽녘이 되면 길거리는 그야말로 개들의 세상이 된다. 사실 길거리 개들이 많아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광견병**의 위험이 큰 것도 사실이다. 병원에는 Mad Dog를 조심하라는 포스터도 붙어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이 개들을 함부로 대하는 지도 모른다. 한 때는 길거리 개들을 안락사 시키는 것이 흔했다고 한다. 길거리 개들의 대부분이 피부병을 앓고 있고 가끔은 혈떡이며 거의 죽어가는 개들도 꽤 보인다.

뭐가 언제부터 어떻게 왜 이렇게 개들이 많아졌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스리랑카 자체에서도 이러한 길거리 개들을 위한 노력이 있다.

embark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인 ODEL의 계열사로, 이 브랜드를 통해서 번 돈으로 다친 동물들을 보살펴주기도 하고 광견병백신, 길거리 강아지 분양, 교육도 한다.

아직도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길거리 개들의 숫자는 너무 많고 이 많은 개들을 도와줄 시설은 모자라고, 내 생각이지만 사람들이 이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지도 않다. 그냥 가끔 죽어가는 개들이 보이면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왜 스리랑카의 월급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할까? 사회적 국가라서 그럴까? 병원도 학교도 무료인 만큼 세금이 많아져서 그럴 걸까? 월급이 부족해서 그 많은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을 치르면서까지 한국에 와서 5년 10년 살다 돈을 벌어서 오는 걸까? 최근 한국어수업에 나오기 시작한, 8년이나 보현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영어도 잘하고, 3개월만에 유능한 성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통과한 똑똑한 스리랑카 아저씨를 한국으로 가게 만들 이유가 도대체 뭘까?

**모**리투와는 수도인 콜롬보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은근히 큰 마트들이 많다. 그리고 그 큰 마트들은 거의 Food City나 Keellsa. Car-gil 이라는 **외국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KFC도 꽤 보이고, K ZONE이나 Big City같은 마트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롯데마트나 EOO에 버금갈 정도이다. 이런 마트들에서 파는 공산품은 현지식당에서 먹는 밥값에 비교하면 너무 비싸다. 우리가 자주 가는 747같은 **현지 식당**에서 거의 2인분 분량의 밥 한끼가 보통 110~180루피 정도 한다. 우리나라돈으로 하면 **천원대**. 그런데 KFC같은 경우 가격이 우리나라와 거의 똑같다. 치킨 세트 한팩에 1000루피가 넘고 웬만한 세트메뉴는 거의 500루피를 훌쩍 넘는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게들에서 이렇게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있고, 또 그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월급이 적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솔직히 월급이 적긴 적다. 평균 월급이 거의 한화 돈으로 10만원 선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100~200만원 벌어서 한달에 100만원씩만이라도 보내면 스리랑카로 치면 평균 월급의 10배를 버는 거니까. 왜 한국에 굳이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도 같고.



#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해 놓은 것들이 제대로 잘 쓰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YMCA에 있는, 9월에 우리가 청소한 컴포스트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Uswatte지역의 컴포스트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체크하려고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문서를 받았는데 그 속에 싱할라어로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적혀있었다.

- YMCA와 미니시펄은 집안의 컴포스트빈을 체크할 권한이 있다
- 만약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컴포스트빈을 회수할 수 있다
- 잘된 집에 스티커를 붙여서 스티커가 많은 집은 작은 보상을 한다

(코디네이터말로는 모든 집에 컴포스트빈을 나누어준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실질적으로도 안 한다. 스티커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

- 컴포스트빈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햇볕 잘 드는 날 낮에는 컴포스트빈 뚜껑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돌 같은 것을 밑에 받치면 좋다고 한다)



모라투와YMCA의 컴포스트빈  
-그늘지고습기찬곳에위치해있음

그런데 지금 우리가 YMCA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포스트빈은 바나나 나무에 가려 하루종일 그늘진 곳에다가 비가 오면 그대로 빗물이 컴포스트빈 안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곳에 위치해 있다.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컴포스트빈을 청소할 때 위치도 바꿨을 텐데. 처음부터 컴포스트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물어볼 걸 하는 후회도 들고, 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컴포스트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왜 이제야 알려주는지, 정작 컴포스트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용에 무관심함 스텝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한국 Y에서 더 이상 컴포스트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중간평가 때에야 들었다. 그 전까지는 지난 기수, Y의 보드멤버 모두 우리가 열른 새로운 집에 컴포스트빈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한 주에 한번 날 잡고 적어도 10집씩은 컴포스트빈을 체크하러 다니자고 결정했다.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체크해야 할까, 주민들 스스로가 의식을 가지고 컴포스트빈을 제대로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멈춰있다.

# 참 좋은 경험 했다!

## 3주 받고, 3주 더!



사고 후 첫 번째 검진 때 의사선생님이 3주 더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는 길에 한국에 돌아갈까?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다.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것보다 한국에서 돌아가서 마음 편히 쉬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3주 더 꼭 쉬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돌아가리라 마음을 고쳐먹었다. 사고 후 첫 3주와 똑같은 3주였지만,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무지 답답했다. 누워서 읽던 책도,

보던 영화도, 드라마도 더 이상 재미있지 않았다. 나라는 사람이 원래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라 하는 사람이라 더욱 더 답답했다. 정신상태가 점점 피폐해 지는 것 같았다.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여행을 떠난 팀원들, 집에 홀로 남겨진 나 “빠우(불쌍하다)”

게다가 팀원들은 일정상 스리랑카 북쪽 지방으로의 2박3일 여행에, 당일치기 현지 대학생들과 수도인 콜롬보 투어, 연말에 받은 휴가를 맞아 스리랑카에서 만난 형님이 계신 곳으로 1박2일 여행까지... 이 모든 시간을 나홀로 집에서 보내야 했다. 그리고 팀원들이 아는 형님을 만나러 떠난 날 새벽, 잠을 자다가 등쪽이 축축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순간 내가 이제 밤에 이불에 실레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나 싶었다. 다행히 그런 상태까지 가지는 않았다.



## 참 좋은 경험 했다!

불을 켜보았지만 폭우로 인해 전기가 나간 것 같았다.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주위를 밝혀보니 온통 물 바다였다. 앞쪽 베란다와 뒤쪽 베란다 모두 비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 새벽에 화장실에 있던 밑대를 가져와 새벽에 나홀로 아주 즐겁게(?) 마루와 남자방 물청소를 했다. 순간 왜 하필이면 나 혼자 있던 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짜증이 확 났다.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로부터 18년만의 폭우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날 칠드런 클럽의 쌍둥이 어머니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맛있는 감자커리를 만들어주시면서 “루완, 싸우(불쌍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격하게 공감이 갔다. 그 감자커리는 정말 맛있었고, 큰 위로가 되었다.

## 다쳐서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



6주 가량 누워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바로 다치거나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팀원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최대한 배려해주려고 노력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다친 사람은 그들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들은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치거나 아픈 사람은 섭섭해할 수 있다.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던지 그 가운데 다쳐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사람이 있다면 이번 사고를 통해 이전보다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다.

## 상황이 그러하다면 즐겨버려!



다쳐서 누워 있는 동안 다른 팀원들과 활동 함께하지 못해 공유하는 부분도 줄어들고, 지루하고,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막역한 친구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얘기해 주었더니, 친구 왈 “거기가서 꿀 빨았구만!(=완전 편하게 지냈구만)”이라고 해주었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활동을 못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는데, 그냥 놀고 먹었으니 얼마나 편하게 지낸 셈 이냐고 말해 주는 게 아닌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 참 좋은 경험 했다!

## 건강이 엘라끼리(=최고=짱)!

한번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락(현지 코코넛술)을 한 병 사서 무진장 마셨다. 이러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 거하게 들이켰다. 결론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쓰린 속을 움켜쥐고 있어야 했다. 술을 엄청 마신 다음 날 병원에 2차 검진을 하러 갔다. 이제 뼈가 다 붙었다. 여행도 갈 수 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젯 밤에 술을 마시지 않는 건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뼈가 붙은 이후로 다시 웬만한 활동에는 참여하고 있고, 무엇보다 앓을 수 있게 되었다. 앓아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줄 전에는 알지 못했다. 그래도 여전히 방탄조끼 비슷한 보호대는 입고 있다. 가끔 너무 덥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벗기도 한다. 뼈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다. 한국에 돌아갈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것이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난다.

아시아 여러 곳에서 열심히 마지막 한 달을 살고 있을 우리 6기 단원들, 그리고 머지 않은 미래에 불타는 5개월을 보낼 7기 단원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올 한해 보내시길 간절히 바란다. 한번으로 족한 6주간 경험, 이 곳 스리랑카에서 참 좋은 경험했다.



# 스리랑카의 북부 Kilinochchi에 가다

2009년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곳

수많은 검문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군인의 허가 없이는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던,

해가 지고 나면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칠흑 같은 어둠과 청적만이  
감도는,

그 곳에 갔다.



2011년 12월 13일

12시간 만에 킬리노치에 도착했다.  
지역 청년들과 함께 간단한 게임을 했다.  
군인들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일시에 중단되었다.



2011년 12월 14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군인들  
을 만나러 다녔다. 어디를 가던  
대답은 하나였다.

'안 됩니다'

2시간이 지나도록 텅 빈 교실에  
모여 우리가 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과 잠깐 '인사' 만,  
아주 잠시 잠깐 '인사' 만은  
나누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렇게 아이들과 만나게 되었다.



안녕!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한  
아이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와나깜! (안녕하세요-타밀어)

엔 배야르 킬리니 <내 이름은 킬리니입니다>

어쨌든 타밀어로 아이들에게 말을 건넸  
다.

까르르 웃는다.

아이들이 웃었다.





군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와 있었다.  
 싱칼라어로 말을 걸스니 그 얼음장 같기만 했던 얼굴이  
 환하게 핀다. 싱칼라어가 군인들의 마음을 열었다.

아이들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이름을  
 물었다. ‘인사’ 하면 스레 이름도 묻는  
 거니까.  
 살짝 군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나이도 물  
 었다. 나이를 물으며 아이들에게 타밀 숫  
 자도 배웠다. ‘손두르, 므두르...’



또 ‘살짝’ 군인들의 눈치를 살핀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  
 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30분 남짓.

30분, 짧았던 시간  
 그러나 그 날의 여운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

여기는 Point Pedro 킬리노치에서 결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  
 킬리노치를 떠나 포인트 페드로로 갔다.



2011년 12월 15일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 할 수 있었다.

‘몰래’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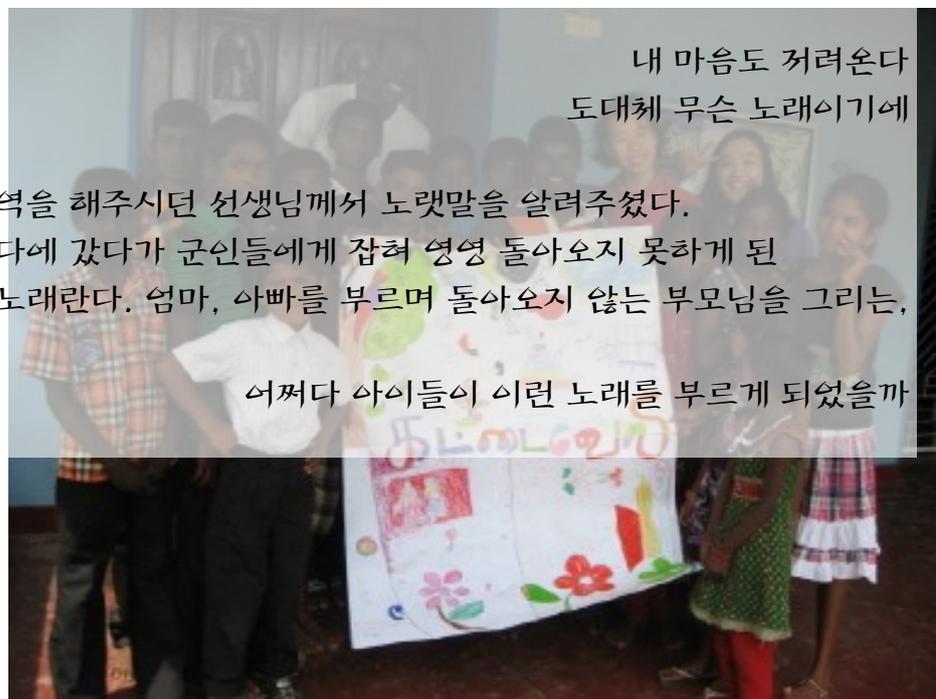


아이들에게 타밀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다.  
 여자 아이 둘이서 고개를 푹 떨구고는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환참 게임을 하며 상기되었던 아이들도 일동 숙연해졌다.

내 마음도 저려온다  
 도대체 무슨 노래이기에

노래가 끝나고 통역을 해주시던 선생님께서 노랫말을 알려주셨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다가 군인들에게 잡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부모님을 그리는 노래란다. 엄마, 아빠를 부르며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을 그리는,

어쩌다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



여기는 Point Pedro 교회에 모였다. 종교행사를 명목으로 허락을 받았다.

그날 우리는, 그들의 삶에 대해,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 했다.



3초,

그녀가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초였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재가 되어 버렸다. 그녀의 집도, 그 안에 있던 가족들도.

그녀가 겪은 전쟁은 그런 것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전쟁의 상처를 앓고 있었다.

2012년 1월 10일

2011년 12월

킬리노치, 포인트 페드로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감정들,

만났던 사람들,

잊지 않으려다.

아이들이 나에게 지어준  
'수자따' 라는 타밀 이름도.



# 전쟁이 끝난? 뒤에

##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원래 스리랑카의 원주민은 싱할라족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타밀족 사람들은 인도 남부에 살고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위치상 아무래도 스리랑카 북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처음에는 서로 아주 조화롭게 잘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 영국이나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들이 침략하면서 높은 자리에 타밀족 사람들만 올려줌으로써 분쟁을 조장. 그때부터 약간씩 싱할라족, 타밀족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가장 최고조를 찍은 것은 식민지로부터 해방 후 어떤 싱할라족 부통령이 언어를 싱할라로 통일하자는 정책을 폈을 때라고. 그때부터 타밀족 청년들이 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여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 전쟁이 끝난? 뒤에

지금 언어정책은 두언어를 모두 존중하지만 현재까지도 대통령은 싱할라 불교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 타밀군(LTTE)이 남아있어서 싱할라군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다. 군인은 100% 싱할라족이라 타밀족 사람들이 군인들을 대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 전쟁이 계속되었던 킬리노치같은 지역은 전쟁이 끝나고 황폐화된 곳의 복구가 시급하다. 어떤 사람들은 움막같은 집에 살고 있다. 킬리노치 지역을 가다 보면 엄청나게 커다란 물탱크가 쓰러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느 지역의 도로변에는 지뢰밭도 남아있다. 그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다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 실감이 났다.

이렇게 황폐화된 지역을 복구하지 않고 무조건 발전만 신경 쓰면 지역간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포인트 페드로에서 타밀족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Youth들을 모이라고 했는데, 성인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 타밀족 사람들은 그냥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했다. 한 아주머니는 전쟁시절 몇 초 만에 7명의 가족을 잃고 혼자 남았지만 울 수 없었다고 한다. 다들 그러니까. 3500명이 한 순간에 재가 되었다고. 또 언어문제 때문에 싱할라인과 친분 맺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전쟁을 겪은 젊은이들은 쉽게 친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전쟁시절 타국에 사는 타밀족 사람들이 NGO를 통해서 타밀군을 지원했고, 어떤 NGO에서는 스리랑카의 열악한 장면들을 사진 등으로 담아 돈을 벌어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NGO에 대한 선입견이나 좋지 않은 시선이 있어 우리도 킬리노치와 같은 곳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을 할 수 없었다. ..

# < 아밀러의 12월-1월 마지막 愛 세이 >

## - 감사의 말 -

중간평가단이 왔다 간 이후로 11월, 12월 동안에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바보로 돌아가 생각 없이 그냥 살지, 아니면 지금처럼 활동과 상황과 관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며 살지. 저의 대답은 지금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며 살지만 그 안에서 중용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 중 가장 와 닿았던 두 가지를 적어봅니다.

“비록 지금의 고민들로 힘들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해답이나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각자의 경험과 지식, 영성에 근거해서 답을 만들어 가는 것이겠지요. 아무도 제공할 수 없는 역량강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니 고민과 고통을 친구처럼 함께 데리고 가시기를.”

- 유네스코 브릿지 사업단 김동훈 팀장 -

“왜’라고 하기 보다는 ‘예’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 JTS 오성근 자원활동가 -

어느덧 시간이 마지막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혁준’이라는 이름보다 ‘아밀러’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네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5개월 동안의 생활은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작게나마 글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 < 아밀러의 12월-1월 마지막 愛 세이 >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항상 온 몸으로 느껴지는 조언을 해 주시는 JTS 자원활동가 오성근 형님, 보고서에 쓴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며 나를 이끌어 주신 JTS 자원활동가 지민주 누나, 중간평가를 통해 제 혼까지 쑥 다 빼놓았지만 저를 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이아나 간사님 그리고 이해정 국장님, 언제 어디서나 관심 가져주시고 조언과 함께 지켜봐 주시는 저의 롤 모델 유네스코 김동훈 팀장님 그리고 저의 영원한 털보쌤 이선재 본부장님.

이메일로 조언과 걱정을 해주시며 항상 관심 가져 주신 홍익대학교 경준현 교무차장님, 뉴스위크 강혜원 기자님, 국제워크캠프기구 김용한 실장님, YMCA 송진호 실장님, 박정규 여행작가님, 구양희 교수님, 김남희 교수님. 항상 멀리서 우리 팀을 위해 응원해 주시는 아산의 오귀복 선생님, 박희정 선생님, 이상희 선생님, 이진영 목사님, 이효희 선생님, 홍승미 선생님 그리고 아산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 멀리 있어도 그 마음이 다 느껴지는 아산 YMCA 이희남 간사님 그리고 박진용 총무님,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홍익대학교 국제교류학생회 박준규 형님, 이현지 형님 그리고 K.I.M.C.H.I. 식구들, 제가 자원 활동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이종현 형님, 한기호 형님.

나에게 언제나 깨알같이 조언과 지랄을 해주는 친구 황경빈, 서로의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친구 이범윤 그리고 최지윤, 여전히 캡틴으로 날 믿고 따라주며 응원해주는 한우진, 강자연 그리고 네팔자야 식구들, 따뜻한 격려와 마음 씀으로 5개월을 열심히 활동하게 도와준 김느리 누나, 스리랑카의 삶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준 라온아띠 이지윤, 배소라, 황지현 누나 그리고 라온아띠 선배님들, 항상 감사하고도 또 미안한 유일무이한 우리 팀원들 김성수, 박가희, 박민정, 이초록, 그리고 지난 5개월 동안 글로써 저를 그리고 저희 팀을 지탱해 주신 한비아 선생님, 하종강 선생님, 김난도 선생님, 김병만 선생님, 김혜남 선생님 그리고 권정생 선생님,

그리고 나의 영원한 지지자이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

다음 달이면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예전처럼 제자리를 찾아 바쁘게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 스리랑카에서의 5개월은 앞으로 평생 동안 제 가슴 깊숙이 남을 추억이자 삶을 살아갈 에너지입니다.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자양강장제처럼 떠올리면 행복해 지는 기억일 것이고, 애꿎었던 첫사랑처럼 아련하고도 가슴 시린 추억일 것입니다.

그 동안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스리랑카.. 너여서 고맙다.

7기 파이팅

아밀러 오혁준

저널이 솟은 상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상이 되리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소원 中-



곰  
라,  
!



메뚜기도 한 철

우리도 한 철,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할 때다.

그럼 이만 안녕히... ..